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추진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요인의 변화 즉,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국가경제의 여건변화가 개별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실패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제도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인식의 한계 등으로 협약을 통해 모든 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고, 민자사업은 일시적인 자금부족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추가 재원조달도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거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 민자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제 경우 두 개의 프로젝트만이 준공되었고,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만은 확실하다. 왜 부진한가? 이하에서는 민자사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실패요인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민자사업의 실패요인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자사업은 실패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한 사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업들도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즉, 실패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민자사업의 실패요인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민자사업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실패요인들이며, 두 번째 유형은 각 사업추진 주체 즉, 정부와 민간투자자, 금융기관들로부터 발생하는 실패요인, 세 번째 유형은 제도적 한계 또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요인,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부터 발생하는 실패요인들을 들 수 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실패요인 유형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민자사업은 단기에 대규모의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매우 길다. 즉, 미래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기간이 매우 길고, 투자의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과 확실성이 높아야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자의 결정에 많은 시